

때이른 더위...물놀이 하러 호캉스 오세요

낮에는 살짝 더위를 느낄 정도로 화창한 날씨지만 그래도 아직 계절로는 봄이다. 하지만 지금 호텔들은 한창 여름 분위기 내기 경쟁이다. 많은 특급호텔들이 5월이 시작되자, 일제히 실외 수영장을 개장하고 손님 맞이에 들어갔다. 몇 년 전만 해도 호텔 수영장은 투숙객 편의를 위한 여러 부대시설 중 하나였지만 ‘호캉스’란 말이 일상화된 요즘은 매출에 제법 영향을 미치는 핵심시설로 자리잡았다. 걸맞게 규모와 투자도 커졌고 ‘다른 호텔에 없는 우리만의 매력’을 부각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제주드림타워 풀데크, 도심·바다 전망 한눈에 반얀트리 클럽에선 도심 속 자연 만끽하며 수영
몬드리안 서울, 독특한 인테리어로 인증샷 명소

●제주 최대, 제주드림타워 풀데크

우리나라에서 리조트들의 경쟁이 가장 뜨거운 ‘레드오션’ 지역이라면 바로 제주다. 국내 첫 도심형 복합리조트를 표방하고 지난해 말 문을 연 제주드림타워는 후발주자로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 주력시설 중 하나로 야외 풀데크를 내세우고 있다.

8층에 있는 야외 풀데크는 일단 규모가 4290㎡로 제주 최대를 자랑한다. 호텔 야외 수영장을 선택할 때 ‘1 옵션’이라는 전망도 강점이다. 풀데크가 제주도의 고도제한인 55m보다 높은 62m에 있어 눈에 도심과 바다, 공항을 모두 내려다볼 수 있다. 많은 호텔들이 여름 외에 봄, 가을까지 영업기간을 늘리면서 거의 필수처럼 된 온수풀도 37도의 수온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6층 실내수영장에서 갈 수 있는 전용 엘리베이터, 영유아를 위한 구멍조끼, 화장실의 지저귀 교체 테이블 등 가족객을 위한 서비스도 있다.

제주신화월드의 스카이프울은 31도의 온수풀로 남서쪽으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는 전망을 자랑한다. 투숙객은 스카이프울 이용과 함께 입장권없이 전용 엘리베이터로 워터파크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 남산 자락에 자리잡은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도심호텔이면서도 리조트 분위기를 지녔다는



제주 최대 규모로 도심과 바다, 한라산을 모두 볼 수 있는 전망을 내세우는 제주드림타워 그랜드하얏트제주의 야외 풀데크, 남산자락에 자리잡은 장점을 활용해 리조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반얀트리서울의 야외수영장 ‘오아시스’, 내부가 훤히 보이는 투명한 수영장 외벽 덕분에 SNS 인증샷 명소로 꼽히는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의 ‘알티튜드 풀&라운지’(위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 | 제주드림타워·반얀트리서울·몬드리안서울이태원

특성이 매력이다. 녹음이 우거진 남산의 경관을 바라보며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에 맞춰 돌과 나무 등 자연소재로 장식했다. 이곳 역시 32도의 온수풀을 운영하고 있고, 아이들을 위한 모래놀이터, 23개의 프라이빗 카바나도 갖추고 있다.

●투명한 외벽 놀이, 몬드리안 서울

부티크 호텔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의 수영장 ‘알티튜드 풀&라운지’는 지난해 8월 오픈 이후 독특한 인테리어가 화제가 되면서 SNS를 중심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5층에 위치했는데, 핑크와 블루의 과감한 컬러와 수영장 외벽을 투명하게 마감해 이용객들의 인증샷 명소로 꼽힌다. 투숙객 전용시설로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이태원에 있어 탁 트인 자연 경관보다는 도심의



아기자기한 전경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색다른 느낌을 준다.

다만 규모가 크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및 폐적한 이용을 위해 3부제로 운영한다. 다른 호텔들에 비해 개장이 조금 늦어 6월에 문을 연다.

라한호텔 전주는 입지 특성이 수영장의 매력으로 꼽히는 호텔이다. 전주한옥마을에 자리잡은 라한호텔 전주의 루프탑 수영장은 일명 ‘한옥뷰’를 자랑한다. 도심 빌딩이나 자연경관을 내세우는 다른 호텔과 달리 인근 한옥마을의 기와지붕이 이어지는 전경을 바라볼 수 있다. 투숙객 외에 외부 방문객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역시 최대 35도의 온수풀을 갖추어 여름이 아닌 기간에 이용할 수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에버랜드서 5월 장미와 파리의 정취 느껴요”

용인 에버랜드의 로즈가든(장미원)이 5월 파리의 거리로 변신한다. 프랑스관광청과 협업체 로즈가든 일대를 유서깊은 카페와 서점, 교회 등이 있어 유명한 프랑스 파리의 생제르망 데프레 거리 분위기로 조성했다. 테라스 카페, 베르사유 궁전 정원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 궁전 콘셉트의 이색 체어와 로즈 마차, 로즈 맥주 등의 포토존을 조성했다. 파리지앵처럼 꾸민 연기자들과 사진을 찍는 ‘로즈 이머시브’ 포토타임도 20일부터 진행한다. 이밖에 해외여행 때 공항 출국의 설렘을 재현하는 이색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사진제공 |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국내 메리어트 11개 호텔, 30시간 투숙 패키지 진행



글로벌 호텔 체인 메리어트 계열의 국내 11개 호텔이 최대 30시간까지 투숙이 가능한 ‘24시간 스테이케이션’(사진) 패키지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메리어트 트의 럭셔리 브랜드인 JW

메리어트부터 셀렉트 브랜드인 페어필드까지 다양한 브랜드가 참여한다. JW 메리어트 서울, 코트야드 서울 보타닉 파크, 코트야드 수원, 코트야드 서울 판교는 성인 2인 조식을 무료로 제공하며 알로프트 서울 명동은 무제한 F&B(음식, 음료)를 즐길 수 있는 리믹스 라운지 혜택을 제공한다. 쉼라톤 서울 디큐브시티는 1박 당 쉼라톤 와인 1병과 30시간 투숙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투어, 백신접종자 대상 해외여행 상품 출시

하나투어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자가격리가 필요없는 하와이, 스위스, 몰디브, 두바이 등의 여행상품을 추천하는 ‘지금 떠나세요 해외여행’ 기획전을 6일 선보였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마치고 한체 형성기간 2주가 지난 사람으로 해외에서 입국할 때 국내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하와이는 상품에 따라 1~2일 관광 및 개별 자유일정이 가능하고, 몰디브는 ‘몰디브 7일-쉼라톤 풀문리조트’ 등 전 일정 리조트식을 포함한 올인크루시브 상품이다. 스위스는 전일 관광일정 혹은 투어텔 등 여행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nhyuk@donga.com

아이더, 아이스 티셔츠 컬렉션...“올 여름 땀 걱정은 끝”

‘벤트 II’ 냉감기술 적용해 쿨링감 ↑
아이스티 소재 적용한 ‘콜린’도 선택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가 ‘아이스 티셔츠 컬렉션’을 출시했다. 진화한 냉감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여름철 땀, 더위 걱정없이 시원한 패션을 완성할 수 있는 제품들로 구성했다.

아이스 쿨넥 폴로티 ‘벤트(Vent) II’는 지난해 처음 선보여 완판을 기록했던 ‘벤트(Vent)’의 두 번째 시리즈다. 체온 변화에 민감한 목부터 쿨링감을 선사하는 냉감

기술 ‘아이스 티 넥(Ice T Neck)’이 넥 카라 안쪽에 적용됐다. 고기능성 소재인 폴리에틸렌의 뛰어난 열전도성이 체온을 선유로 빠르게 이동시켜 머리부터 온몸으로 전해지는 시원함을 선사한다.

아이더만의 후가공 3D 기능성 냉감 소재인 ‘아이스티(ICE-T)’가 적용된 아이스 티셔츠 ‘콜린(COLIN)’과 ‘네블라(NEBULA)’도 새롭게 선보인다. 초기 터지감만 차가운 기존 냉감 소재들과 달리 땀과 수분에 반응해 지속적인 쿨링 효과를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콜린’은 아이스 티 냉감 소재와 통기성

이 우수한 메쉬 소재가 하이브리드돼 최상의 쿨링감을 전하는 냉감 웨어다. 은나노 입자를 적용해 항균소취 기능도 강화했다. ‘네블라’는 컬러 배색이 돋보이는 레귤러 스타일의 아이스 티셔츠다. 소매 부분에 블랙 컬러 배색을 활용한 레귤러 디자인으로 무더운 여름 야외활동 중에도 멋스러운 패션을 완성할 수 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해지네”. 아이더 브랜드 모델 김우빈이 아이스 쿨넥 폴로티 ‘벤트(Vent) II’를 멋진 포즈로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 아이더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5월 7일(금) 음력: 3월 26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뽀롱	뽀롱	뽀롱	뽀롱	뽀롱	뽀롱	뽀롱
뽀롱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문명이 과도하게 진보하면 퇴폐의 미를 좋아하게 되어 마침내 소박한 생명력을 잃고 만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외면만을 치장하고 내면적인 깊이를 잃고 만다. 매사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냘프고 의지할 것이 못되나 나중에 강이 될 수도 있다. 매사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경계망동을 삼가 하라. 기발한 표적으로 상대를 누르고 실리 달성을 확실하게 하는 기운이 강한 날이다.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바뀌어지는 운기의 날이다. 그러나 개혁을 급격히 행하기는 어려우며 서두르면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거래에서 큰 건수가 들어온다.	창고에 곡물이 산과 같이 쌓여있는 운기이다. 대망을 품은 자는 먼저 힘을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라. 자중자에 하라.	부인이나 자식, 근처자로 인한 가정 내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밖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우선 가정 내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겠다. 가정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 가정의 화목하게 된다.	한낮의 암흑처럼 절정에 달해있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쇠퇴의 그늘이 지므로 겉은 화려하고 활기가 넘치지만 내부에는 걱정이나 갈등, 비밀 등이 내포되어 있는 때이다. 이런 때는 매사 초지일관 자세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원숭이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태연하게 움직이지 않는 산의 운기이다. 심사숙고해서 경계망동을 삼가야 할 때다. 결속력이 나이가면 산에 산이 중첩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계획은 곧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키기가 좋다. 선배와 상의하라.	작은 일은 뜻대로 되지만 큰일은 중도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있다. 표면은 좋아보여도 내면은 진실성이 없으며 현재 무슨 일이나 분명치 않아 단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때다. 거래상대가 이쪽을 의심하게 되니 잘 설득시키기가 중요하다.	사람의 턱과 같은 운기의 날이다. 사람은 턱을 움직이면서 음식물을 씹어 먹고 육신을 기르는데 이처럼 턱은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병이나 화또한 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 다. 구설수나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주의하라.	무슨 일이나 엇갈리고 배반되어 잘 들어맞지가 않는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팔방이 꽉 막힌 상태이다. 당장은 힘들어도 차츰 나아지는 운세이나 자포자기에 빠져 협력자에게 배반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상대방과 완전히 의견과 방향을 달리하는 운기이다. 이럴 때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대립은 격렬해지고 결과가 나빠진다. 스스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면 타인의 도움도 합쳐져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참고 기다리면 좋은 결실이 온다.	

오늘의 날씨				7일(금)	
서울	70/0 13 18	인천	60/0 13 17	춘천	70/0 10 20
강릉	0/0 17 25	대전	60/20 13 21	전주	60/60 14 22
광주	20/10 14 22	대구	10/60 12 25	부산	20/20 14 21
창원	20/20 13 21	제주	20/10 17 25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573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숙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신입경제부장 양형모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릉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